

“구구단도 몰랐는데 한글 배워 시 쓰니 뿌듯해요”

광주서구노인복지관 교육 45명 한글·구구단 등 공부 전시 시화들 공모전 출품도

“어린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서 어린 남동생을 등에 업고 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글을 몰라서 학교에서 나오는 소리가 구구단인지 노래인지 알지 못해 서러웠는데 이제야 구구단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지난 6일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2층 누리마당.

자작시를 토박토박 써내려가던 최순옥(77) 할머니는 복이 메었다.

어렸을 적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최 할머니는 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쳐 평생 이름 석자를 못쓰는 문맹으로 살아야 했다.

최 할머니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이

늘 가슴속에 있었다면서 늦은 나이에 야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을 배우고 싶었던 구구단을 배웠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글을 몰라 애를 먹은 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혼자서는 도저히 갈수 없었던 은행도 방문하는 등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 할머니는 “한글을 몰라서 구구단인지 노래인지 알지 못해 서러웠는데 교실에서 구구단을 배우고 있고 그 배움의 기쁨을 시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남용숙(75) 할머니도 최근 배움의 기쁨을 얻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할 수 없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가정을 돌보느라 공부할 기회를 놓쳐 ‘까막눈’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던 남 할머니는 3년 전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한글반에 입학해 글을 깨우쳤다.

남 할머니는 “이번 6·13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후보자의 이름과 공약을 제대로

로 읽고 투표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9년부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해 성인(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단계별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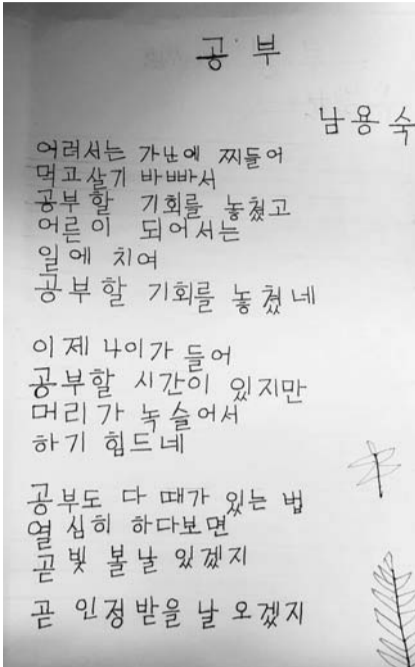
지난 6일에는 성인문해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45명이 한글을 공부하면서 인생을 시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작성한 글과, 그림으로 총 23개 작품 중 2개의 작품을 9월에 열린 전국성인 문해시화전에 공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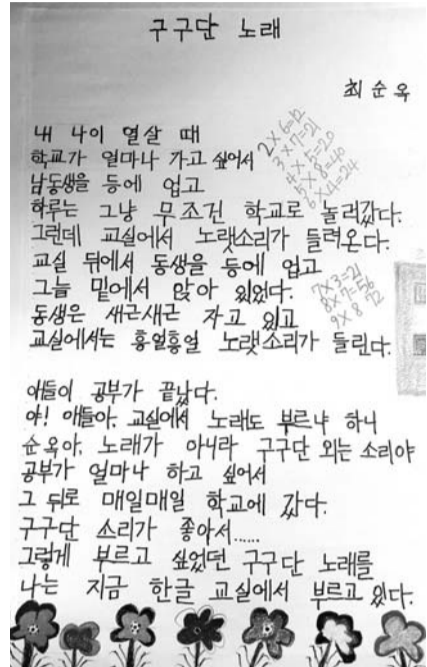
전석복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은 “단순한 한글 교육을 넘어 배움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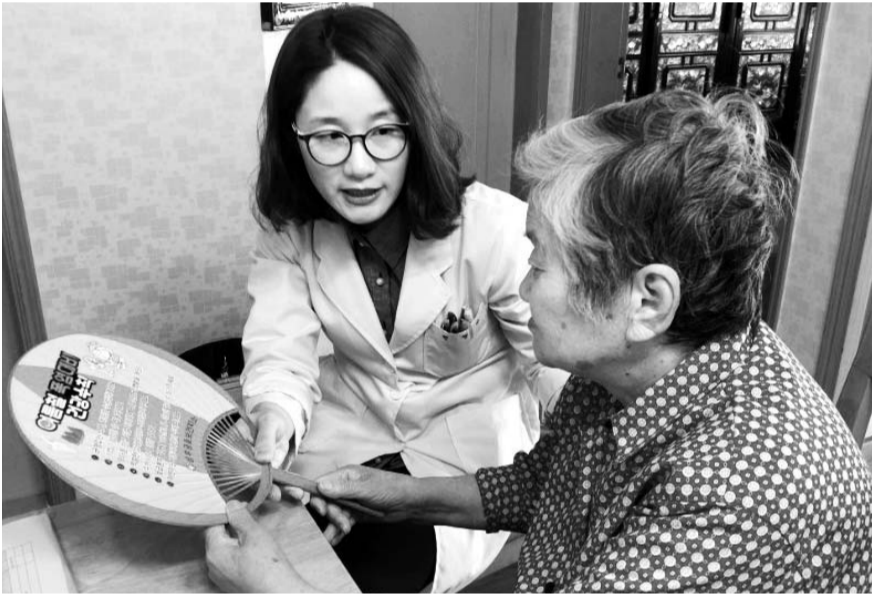


남용숙 할머니의 '공부'



최순옥 할머니의 '구구단 노래'

건강한 여름나기... '서구 방문건강관리'



홀로 사는 어르신을 찾은 방문간호사가 여름철 건강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가 여름철을 맞아 의료취약 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집중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의 기초건강관리 등을 실시, 대상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가정방문 간호사 13명 등 물리치리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육,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올바른 틀니관리 교육 등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건강관리에 취약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폭염 경보시에는 독거노인 안부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는 서구 상무금호보건지소(062-350-4175)로 연락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최근 완도 나들이를 떠난 택시 자원봉사자들과 중증장애인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산구장애인협회 제공>

편견 대신 사랑 실은 택시운전자들

봉사단 20명, 중증장애인 80명과 완도 나들이

광산구장애인협회가 광주시 대상회 장애인 무료차량봉사자와 함께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열었다.

10일 광산구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80여 명의 중증장애인 20여명의 택시 기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평소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힐링과 재충전을 돕고 추억과 희망을 만들어 주기위해 기획됐다.

지난 4일 하루동안 이어진 여행에서 중증장애인은 대상회 회원들이 운전하는 택

시 20대에 나눠 타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완도 장보고 기념관, 해조류 전시관, 강진 마량항 등을 돌며 서로를 격려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광산구장애인협회 이혁 회장은 “장애인을 위해 시간을 내고 수고를 해준 대상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직장가입자는 0.22%P ↑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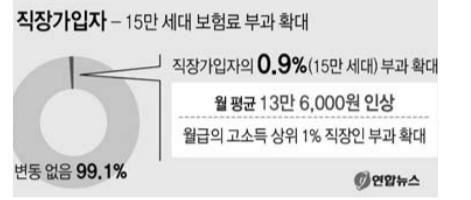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0.22%포인트,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6.4원 오른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의는 지난 5월말 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의약단체 간 내년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동네의원과의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2.7%, 2.1% 각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개편

(자료: 보건복지부)



광주 남구 청소년도서관

치매극복 선도 기관 선정

광주시 남구 청소년도서관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치매관리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중앙치매센터는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 도서관을 통해 치매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남구 청소년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선정했다.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은 도서관에 치매 관련 도서 및 자료를 배치해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특화 도서관이다.

남구 치매안심센터와 남구 청소년도서관은 치매와 관련된 최신 간행물을 비롯해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행하는 도서 등을 비치했다.

현재 치매 관련 서적 50여권이 소장돼 있으며 치매 관련 서적 및 간행물이 추가로 비치될 예정이다.

또 남구 치매안심센터는 청소년도서관에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직원 한 명을 전담배치해 치매에 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http://www.moe.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